

2013 Summer Vol 1

# 동가 (童歌)

아이들 웃음소리



발달장애 사회성 발달 전문기관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희망 세상을 열어갑니다.





2013 Summer Vol 1

# Contents



- 2 [시설장 인사말]  
행복한 가정을 위한 희망을 생각하며.../추석호 센터장
- 3 [발달장애 자녀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6 [프로그램 교육 활동 현황]  
우리아이들이 받고있는 프로그램은?
- 10 [상반기 센터 행사 소개]  
가족지원사업, 부모교육, 장애인 미술전
- 12 [Essay]  
축복의 통로/배호진(이승재어머니)  
편식대장 평강이가 변했어요/이선주(서평강어머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김명선(이승준어머니)  
설렘.../사회성발달운동교사 최성민
- 18 [시설소개]  
함께 뛰어 놀면 친구가 됩니다/ 통합활동관  
통합활동관을 이용하며/곽은영
- 20 [자원봉사이야기]  
발달장애인의 더욱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육동규  
오늘 더 사랑해 줄거야/ 김기은  
한 줄 햇살보다 더욱 소중한 아이들/ 김동윤
- 24 [졸업생이야기]  
따뜻한 동지였던 사회성증진반을 떠나며.../이승민(장훈어머니)
- 26 [이용현황]
- 27 [하반기 일정소개]
- 28 [희망세상만들기]  
우리는 모두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송주영



동가(童歌) 아이들웃음소리 | 2013 여름 통권 1호  
 제1호 발행 2013년 6월 30일 발행처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28-1 T.02-448-3302  
 발행인 추석호 편집인 홍원기 자료정리 주민성, 이정순, 소연자, 이용화, 강은주, 양다운, 최보윤, 최성민 편집/인쇄 이디엘

## 센터 비전

발달장애와 함께 성장하는  
발달장애 전문기관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 교육 목표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 센터 사명

발달장애 학생의 자립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 “행복한 가정을 위한 희망을 생각하며...”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적 발달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향해 온지도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하나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발달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성발달교육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인성을 키워주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잠재된 신체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살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고 외견상으로는 별로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아이들! 아이들은 외계인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단지 우리 모두의 얼굴과 생김새가 서로 다르듯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을 사회에 인식시키고 이해시켜서 가족과 사회가 이 아이들과 융화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국가의 행복과 복지사회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무지개빛 하늘에 한 점 먹구름이 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분명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능력까지 우리 모두가 무시하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센터는 장애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가려져있는 타고난 재능도 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게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도 앞질러 실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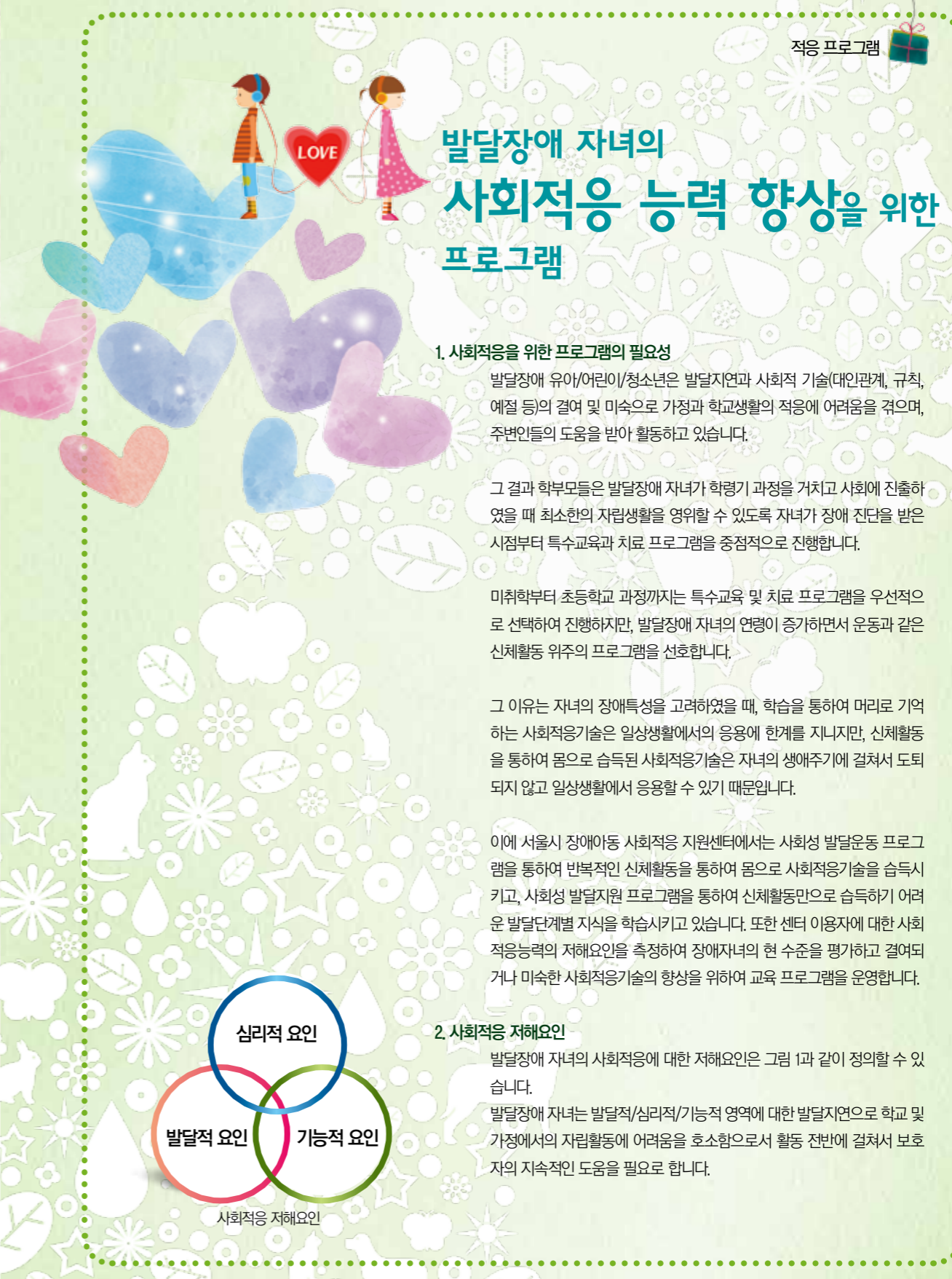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어두운 밤길 작은 빛을 비추는 손전등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장 추석호



# 발달장애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1.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발달장애 유아/어린이/청소년은 발달지연과 사회적 기술(대인관계, 규칙, 예절 등)의 결여 및 미숙으로 가정과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가 학령기 과정을 거치고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최소한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특수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특수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지만,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을 통하여 머리로 기억하는 사회적응기술은 일상생활에서의 응용에 한계를 지니지만, 신체활동을 통하여 몸으로 습득된 사회적응기술은 자녀의 생애주기에 걸쳐서 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발달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복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몸으로 사회적응기술을 습득시키고, 사회적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활동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발달단계별 지식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응능력의 저해요인을 측정하여 장애자녀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결여되거나 미숙한 사회적응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2. 사회적응 저해요인

발달장애 자녀의 사회적응에 대한 저해요인은 그림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는 발달적/심리적/기능적 영역에 대한 발달지연으로 학교 및 가정에서의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활동 전반에 걸쳐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적응 프로그램

### 3.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영역별 요인

다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달장애 자녀의 사회적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영역별 요인을 그림과 같이 운동발달/지역사회 적응/정서적 안정/인지발달/사회적 기술습득/그룹활동 영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4.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구성	세부 프로그램	요인	발달영역
사회성 발달운동	개별운동	사회적 기술습득 그룹활동 인지발달 정서적 안정 운동발달	운동학습을 통한 동작성 인지발달과 동작 개념화 운동기술 습득과 체력 향상을 통한 자기관리 동작수행을 통한 자존감 형성 그룹활동을 통한 규칙, 관계, 질서, 예절익히기 등
	신체적성운동		
	지각운동		
	사회적응운동		
사회성 발달지원	SJSC 스포츠단	지역사회적응	그룹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술 습득, 지역사회 체험학습 문제해동 증재, 상호작용기술 습득, 자존감 향상 읽기, 쓰기, 말하기, 수개념, 문제해결능력, 주의집중력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확장하는 기술 습득
	사회성증진반		
	심리치료		
	개별특수교육		
	동화표현놀이		

### 5. 사회적응능력 평가 영역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발달장애 자녀의 사회적응 저해요인을 발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해요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시킵니다. 즉 장애자녀의 현행수준을 측정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입니다. 사회적응능력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동평정 척도

- 행동평정척도는 학급이나 가정에서 행동상의 결함 때문에 학교나 관련 집단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종합적 원인론적 행동양상의 식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아동의 부적응을 예언하고 선별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위요인으로 신경경요인(심한자책, 심한불안, 심한위축, 자아강도부족, 체력부족), 미성숙(심한 의존, 협응력 부족, 지적능력 부족, 학업성취 저조, 주의력 부족), 반항성 및 공격성(자제력 부족, 현실감 부족, 정제감 부족, 심한 자학, 유희억제력 부족, 심한 피해의식, 심한 공격성, 심한 저항, 사회적응력 부족)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정신건강

- 아동의 정신건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강점·난점체크리스트(Korean version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이하 SDQ-Kr)를 사용합니다. SDQ는 4세 ~ 16세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 개발되어졌으며, 아동의 강점(사회지향행동)과 난점(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또래문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주의/과잉행동영역의 변별이 우수하고 영역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 3) 운동능력검사

- 운동능력 평가의 대상연령은 5세-12세(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이며, 해당 아동을 잘 알고 있는 부모 혹은 교사 및 임상가가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가 간단하여 운동 손상이 의심 가는 아동의 조기 선별이 가능하고, 평가가 용이한 도구입니다. 평가 점수에 따라 운동협응성장애(5% tile 이하), 경계선 급(15% tile 이하), 정상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협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의 하위 영역은 고정되거나 예상 가능한 주변 환경에서의 움직임과, 동적 및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움직임 활동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정적 활동으로 자조기술, 교실기술, 운동/놀이기술과 동적 활동으로 자조능력, 공 기술, 운동/놀이기술의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hildren Autism Rating Scale: 이하 CARS)

-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는 아동의 자폐성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사람과의 관계·모방·정서반응·신체사용·물체사용·변화에 대한 적응·시각반응·청각반응·미각·후각·촉각반응 및 사용·두려움 또는 신경과민·언어적 의사소통·활동수준·지적반응의 수준과 향상성·일반적 인상의 내용 등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들은 1점에서 4점으로, 영역의 합은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의 범위를 나타내는데 30점 미만은 자폐아님, 30점-36.5점은 경미 중간 자폐, 37점-60점은 중증 자폐로 분류됩니다.

#### 5) 놀이성 척도(Playfulness)

- 아동의 자발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로 놀이성 척도는 신체적자발성, 사회적자발성, 인지적자발성, 즐거움, 유머감각의 5가지 영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6) 동기사정척도(Motivation Assessment Scale)

- 아동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기행동척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감각, 회피, 관심결기, 선호활동 등으로 나누어 아동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척도입니다. 동기사정척도는 기능분석을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척도입니다.

#### 7) KISE-적응행동검사

- KISE-적응행동검사는 아동의 적응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아동과 지적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개념적 적응행동, 사회적 적응행동, 실제적 적응행동으로 나누어져 총 585문항으로 구체적인 적응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6. 사회적응능력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 1단계. 발달장애 자녀의 사회적응 저해요인 확인
- 2단계. 약점 보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저해요인 해소(약점→강점)
- 4단계. 발달장애 자녀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에서는 연 2회 장애자녀의 사회적응능력을 측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녀의 발달변화를 평가합니다. 장애자녀의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 사회성발달 - 개별운동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믿어봐!**  
 그룹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동작수행에 어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교사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자존감이 부족하여 내가 할 수 있을까? 지나칠 정도로 신중할 때  
 발달장애 아동들은 영역별 발달지연으로 그룹 안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개별운동은 아동이 지닌 약점을 반복적인 동작수행으로 보완하여 원활하게 그룹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성발달 - 신체적성운동

**공으로 탑을 맞춰보자~!!! ~**  
 일정한 거리에 있는 탑을 공을 던져 맞추는 활동을 통해 집중력 및 물체조작능력, 운동 수행능력(기본동작)을 발달시킨다.

**살금살금 조심조심~!!!**  
 평균대를 신체균형을 잡고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기를 통해 신체조작능력 운동수행능력(기본동작)을 발달시킨다.



## 사회성발달 - 지각운동

**'친구야 받아~'**  
 색상에 맞추어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교사의 언어적 지시에 맞추어 풍선을 주고받는 활동으로 방향에 대한 인지와 물체, 조작능력, 친구와 함께하는 사회성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향상되고 있습니다.



**'친구야 함께 가자~'**  
 규칙을 지키며 친구와 함께 협동하여 장애물을 통과하는 활동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기에 서로 의지하며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넘어져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신체활동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지각운동반 아이들입니다.

**'오른쪽!! 왼쪽!! 어디로 이동하나~' '공아~먼저 가지마~!'**  
 도구를 이용한 활동을 통하여 물체조작능력과 방향에 대한 지각능력을 향상시키며 친구와 함께 하는 경쟁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각운동은 아이들과 한발씩 이동하는 기본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즐거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 사회성발달 - 사회적응운동

사회적응운동에서는 사회성과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축구, 줄넘기, 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규칙과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협동심, 경쟁심을 활동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신나게 축구를 하다 보면 다른 팀에게도 자주 패스를 해주고 자살골을 넣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이팅도 넘치고 즐거운 사회적응운동에서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성발달 - 스포츠단

장애아동청소년 스포츠단에서는 사회성과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모여 매주 금요일 3시간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운 스포츠를 밖으로 나가 뽐내보기도 하고 여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계절스포츠, 주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과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며 스포츠를 즐기면 시간이 금방 지나 가는 거 같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스포츠단에서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장애아동청소년 스포츠단에서 3월 실내암벽등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 본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시에 따라 준비운동을 하고 암벽등반대 앞에서 다 같이 모여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겁내하던 아이들도 재미있어 보였는지 한 명 한 명 앞 다퉈 암벽등반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동작도 점차 자연스럽게워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손이 아파오지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대해 도전하는 우리는 장애아동청소년 스포츠단입니다~



### 사회성증진반

〈이별의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의 설렘〉  
소복이 눈이 쌓인 2월의 어느 날, 헤어짐을 앞두고 우리들만의 졸업여행을 떠났어요.

눈발에 누워 하늘도 바라보고,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처음에는 무서워 보였지만 한 번타면 계속 타고 싶어 지는 썰매대 썰매 체험까지! 즐거운 추억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작별의 졸업식날. 졸업하는 형, 누나들과 동생들,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졸업축하 영상시청, 편지낭독 등의 시간을 가지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어요. 아이들의 어릴적 영상을 보며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부모님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아쉬운 이별을 하고 지금은 교복을 입고 의젓하게 중학교에서 생활 중인 우리 아이들~ 앞으로의 앞날도 사회성증진반에서 응원합니다!



형, 누나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새로운 가족이 된 귀염둥이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 특기적성 - 동화표현놀이

〈나는 동화작가, 동화 속 주인공〉  
개구리, 공주, 왕자, 왕이 나오는 동화는 무엇일까요?  
아이들만의 생각으로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동화를 만들었어요. 왕자와 개구리가 친해서 공주가 화가 난 이야기, 공주와 왕자가 사랑한 이야기,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서 왕자가 화 난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어요.  
주인공들이 나오는 동화는 바로 개구리왕자였네요.



책을 읽고 동화표현놀이배 골든벨 퀴즈를 했어요. 혹시나 틀릴까 걱정하는 아이. 오답이여도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 답을 쓰기 전에 크게 외치는 아이. 우리들만의 즐거운 퀴즈왕 선발대 회였습니다.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 대본을 연습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씩씩려워하고 서로의 모습이 웃긴지 하하하 웃습니다.

어둠과 불빛을 이용한 그림자 인형극 활동으로 마무리 배경, 인물도 바꿔주고 대사도 해야 하고 바쁘다 바빠~ 멋지게 공연을 마친 아이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릴테니 다음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이름 중 ‘은’ 자 만들게 시작~!”  
지금은 글자 만들기 게임 중!  
갈팡질팡 하던 친구들이 어느새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1분 내로 글자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놀이는 인생 공부 방법이 아닐까요?

심리치료에서는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와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며 서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해보도록 함으로써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 타인과의 상호작용능력을 터득하도록 사회적응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 개별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별특수교육은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지식들! 기초학습개념, 시간의 규칙, 계절의 흐름 부터, 인과관계 파악하기, 문제해결능력등 생활에 꼭 필요한 화폐교육까지~ 차근 차근 단계별로 배움으로써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1. 봄사진

추운 겨울이 지나고 화사한 봄이 되었군요!! 우리나라의 계절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변화를 탐색,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지식들! 기초학습개념, 시간의 규칙, 계절의 흐름 부터, 인과관계 파악하기, 문제해결능력등 생활에 꼭 필요한 화폐교육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움으로써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2. 화폐교육

“내가 사고 싶은 초코렛은 얼마일까? 거스름돈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  
성인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화폐지식!! 화폐에 대한 이해, 돈 계산하여 주고 받기, 역할놀이 등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화폐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지식들! 기초학습개념, 시간의 규칙, 계절의 흐름 부터, 인과관계 파악하기, 문제해결능력등 생활에 꼭 필요한 화폐교육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움으로써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센터 행사(1~6월)



## 가족체험여행

센터에서는 장애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오감능력 향상과 사회성향상을 목적으로 가족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형제에 및 가족애 증진을 목적으로 가족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4월13일 46명이 참가하여 '외갓집체험여행'을 진행하였고, 5월11일 43명이 참가하여 '목장체험여행'을 진행하였다.

## 부모/직원교육

웃음치료  
4월5일

장애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을 하는 센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혁균 한국편경영연구소 소장님을 초빙하여 "웃는 부모-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개최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지만, 강사님의 편안한 강의로 웃음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강사초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부모와 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 외갓집체험여행

4월13일



'외갓집체험여행'은 인절미 떡매치기, 야채전만들기, 벚짚공예, 유기농화분만들기, 재기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으며,

## 장애인미술전 참가

4월9일

지난 5월13일부터 6월20일까지 코트라가 후원하는 장애인 미술인전이 오는 코트라 본관 1층 오픈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 본 행사에서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미술인 작품 20여점과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9명의 아동 그림이 전시되었으며, 아동의 그림을 적용한 텀블러, 머그컵 등이 전시되었다.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센터 장애아동들은 꿈, 희망이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냈다.
- 5월 13일(월) 오프닝 관람행사에서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미술작가와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어린이간의 '멘토링' 교류행사도 함께 시행되었다. 장애미술인과의 멘토링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인겨주었다.
-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약을 통하여 미술에 재능있는 아동들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 목장체험여행

5월11일



목장체험여행은 치즈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송아지 우유주기, 건초주기, 찻짜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진행 될 것이다.



## 축복의 통로



배호진(이승재 어머니)

4년 전 여름 장마가 시작될 즈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승재와 손을 꼭 잡고 사회적응센터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린아이였던 승재는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 되었다.

아이를 특수학교로 진학 시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오게 되었고 낮은 환경에 적응하며 치료기관을 찾던 중 아는분의 권유를 받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지체성 장애를 가진 승재는 어려서부터 많이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았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항상 쉽지 않았다. 특히 그룹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처음이어서 그룹 체육 수업을 한다는 것이 승재와 내게 큰 도전이었고 승재의 불안만큼 엄마인 나도 늘 줄타기하는 것처럼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적응은 예상보다 쉽고 빨랐고 무엇보다도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 가는 것과 승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서도 배워 나가고 함께 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 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회복의 시간들이었다.

물론 이 시간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한다. 승재뿐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매시간 성실하게 지도해 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의 노고와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장애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배려해주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음을 함께 지내온 시간 가운데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되고 인정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그 연약함을 함께 인내하고 견디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삶의 가운데서 얻게 된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승재의 장애는 축복의 통로라고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승재와 나에게 도전과 회복의 기회가 되어 준 사회적응센터와 선생님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기에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편식대장 평강이가 변했어요

평강이가 동화표현 시간에 유난히도 좋아했던 책이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인데 유난히도 편식이 심한 아들은 책에 나와 있는 감태를 먹기 시작했다.

감태는 파래 김 보다 더 씹쓸한 맛인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나도 먹고 자랐다. 그 때 어린 아이들은 김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감태를 아이들은 김을 먹었다. 어떻게 아들이 감태를 먹게 되었을까? 모두 책 덕분이다.

책에는 감태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나온다. 외할머니 집이 시골이라서 경운기도 타보고 여름엔 바닷가에서 물놀이도 하는데 어느 때 인가는 멀리 할머니 마을이 보이자 책머리에 나오는 지도가 생각났구나. 저기는 제동이네집이고 저기는 옥이 할머니 집이라면서 마치 동화책 마을에 온 것 같은 말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책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즐길 줄 아는 아들 녀석... 수업 이름대로 동화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선주(서평강 어머니)

## 가장 중요한 수업을 했군요

심리치료 선생님이 상담시간에 “어머니 오늘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경위를 설명해 주셨다. 시작 전부터 고집을 부린 것이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놀이를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시작부터 힘겨운 날이 있다. 부모입장에서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든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수업인데... 하루를 그냥 보냈구나. 그러나 선생님은 몇 십 배 힘든 수업을 하신 것이다.

아이에게 지식이나 놀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수업은 되고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아이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상담 후 나는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수업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다.

승준이는 '토마스와 친구들' 을 좋아하는 지적장애3급 장애아동입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입학에 놓고 고민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승준이가 벌써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승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몇 달 전, 그 동안 살던 서대문구에서 송파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동감하겠지만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대기하면 순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기에, 이사를 오기 몇 달 전부터 송파구에 있는 복지관들과 특수치료기관에 대기를 해놓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송파구는 전에 살던 곳 보다 복지여건이 좋아 이사를 오면서 바로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등 특수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비장애 친구들과 수업을 하면서 언어, 인지, 학습 등에 대한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운동능력만큼은 생후 10개월에 걸음마를 걸을 만큼 다른 아이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세고, 겁도 많고, 사회성 등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 체육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줄넘기 같은 쉬운 운동도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과 같이 모 복지관에서 승준이가 수업을 받는 동안 다른 엄마와 이런 고민을 얘기하던 중 그 엄마로부터 마천동에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에 운동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대기를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천동을 지날 때면 성내천 옆에 뜬금없이 서있는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라는 간판의 흰색 벽돌 건물은 본 적이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장애아동에 대해 사회적응을 지원해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 라고만 생각 했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이 있는 곳 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지마자 인터넷으로 사회적응센터 홈페이지 검색을 해보았고,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체적성운동반, 지각운동반, 사회적응운동반 등



김명선(이승준 어머니)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 바로 대기를 하여 몇 달 후 테스트를 받았고 승준이에게 맞는 반을 배정 받아 여러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처럼 매주 2회 사회적응센터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한 개도 넘기지 못했던 줄넘기를 몇 백 개씩 할 정도로 아이의 운동능력과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일찍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몰랐을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응센터에서 즐거운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10년 5월 생일을 몇일 지난 어느 날 승준이가 사회적응센터에서 수업 시간에 줄넘기를 하던 중 오른쪽 팔 골절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여 두 번의 수술과 2주간의 입원, 두 달간의 깁스와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회적응센터의 배려로 힘든 기간을 잘 이겨내고 두 달 후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응센터를 다닌 지 5년째인 지금은 '사회적응운동' 에서 매주 2회 운동을 하고 있고, 방과 후 교실인 '사회성증진반' 에서 매주 2회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과 체험학습, 운동을 통해 사회성과 운동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승준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은 '외갓집 체험여행', '목장체험' 등 장애가족 체험학습을 통해 가족애와 추억을 쌓았고, 또한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장애형제자매멘토링 프로그램인 '하림' 을 통해 승준이 누나는 장애 형제를 가진 친구들과 수업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장애 아동을 기르고 계시면서 사회적응센터를 설립하신 추석호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소연자 선생님, 최성민 선생님, 그 외 교육팀 선생님들, 행정팀장님과 주임님,

자원봉사 선생님들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응센터에 바람이 있다면 '사회성증진반' 중학교 프로그램이 생겨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계속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서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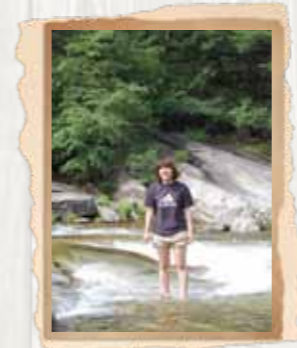
2012년 2월 서울시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와 나의 인연은 시작됐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이 운동수업을 할 새로운 아이들  
모든 게 첫 출발선에 선 듯 설렘이었다.

아이들을 만나던 첫날 나에게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해주던 아이, 또 나를 멀리하고  
다가가면 무서워하며 도망가던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출발선에 서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무서워하며 도망가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눈 맞춤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아 같이 일하시는 동료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듣고,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아이들에게 천천히 나를 기억시키며 스며들기를 나의 목표로 삼고  
센터에 오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센터에서의 첫출발이 시작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사회성발달운동이었다.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비슷한 체격의 또래들이 모여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고,  
다른 아이들과 경쟁 활동을 하며 승부욕,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이다.  
매 수업시간마다 아이들과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면 어색했던 그 첫 만남은  
어느새 잊혀지고 몸을 부딪치고 파이팅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나의 모습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몸을 부딪치고 땀을 흘리다 보면 아이들도 운동의 매력에 빠져  
힘든 내색 없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말을 잘 따라온다.

많은 활동 종목 중에 특히 줄넘기는 모든 수업에 빠지지 않는 활동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줄넘기도 가지각색으로 수행한다. 줄넘기를 하기 위해  
바지를 끝까지 추켜올리는 아이, 바지가 내려가도 끝까지 줄넘기를 하는 아이,  
줄넘기를 시작하면 창 밖을 보는 아이, 나를 피해 다니는 아이,  
내 앞에서만 줄넘기를 하려는 아이들도 있다.  
줄넘기를 전혀 하지 못하던 아이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줄넘기를 조금씩 익혀나가는



최성민(사회성발달운동교사)

모습을 볼 때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다려주고  
반복해서 알려주면 언젠가는 알려준 동작을 기억해 낸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가끔은 그룹을 이탈해 혼자만의 행동을 하고 통제가 잘 되지 않아 애플 먹은 수업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 눈을 맞추며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과  
잘한 행동을 얘기해주고 꼭 안이주면 그 아이도 내 얘기를 다 이해를 했는지  
어느새 나를 안아준다. 이럴 땐 그 아이가 방금 전까지 말썽을 부리던 아이였던가...  
착각 할 만큼 천사 같은 아이가 되어 나를 꼭 껴안아준다.

아이들을 만난 지 오래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주고  
“선생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름을 금세 잊어버리거나 한참 뒤에 대답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힌트를 주어 이름을 기억해 내도록했다.

어느새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다가올 때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  
또 이렇게 하나하나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는 아이들을 보면  
이 일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센터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

매일매일 반복된 생활에 익숙해질 때  
일 년 전 센터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렌다.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것이 설레고  
오늘은 아이들과 어떤 추억이 생길지,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생각만 해도  
센터에 오는 발걸음이 설렌다.





## 시설소개 - 통합활동관

# “함께뛰어 놀면 친구가 됩니다”



### 통합활동관은?

또래 아동과 어울릴 기회의 부족으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있는 장애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놀이와 교육을 접목시켜 장애, 비장애 친구들이 함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놀이교육 공간으로써 장애아동에게는 비장애아동의 행동을 모방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근력, 평형감각, 지각능력을 발달함으로써 자기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비장애아동은 모험심, 도전정신, 탐구능력, 민첩성, 용기를 통하여 자조기능과 협동심을 통하여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함께 뛰어 놀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앴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세상을 만드는 통합활동관**

우리모두 친구가 되어 보아요!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통합활동관 이용하며...

어린이집이 끝나면 놀이터로 향하는 큰 아이...

신나게 뛰어 노는걸 좋아하는 큰 아이에게 올 봄 유난히 짓궂은 날씨 탓에, 집으로 바로 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미안해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가는 큰아이와 오후에 놀이터에 놀러 가자고 약속했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실망하는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 조카와 함께 갔던 실내놀이터가 떠올라 큰아이의 친구들과 같이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곽은영현우 아동의 엄마 곽은영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넓은 장소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을 따라온 이제 막 걸음마를 떤 동생들도 한 몫하며 놀았습니다. 같이 온 엄마들도 일반 키즈카페의 10분의 1도 안되는 이용요금에 동네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냐며 다들 만족했습니다. 첫날 그렇게 신나게 놀고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만 가자는 약속은 이제 없어지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당연히 실내놀이터로 달려온 지 한 달이 넘었답니다.

야외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날씨도 제한적이지만 위험한 것들이 많아 마음 편히 아이들이 놀 수 없고, 쫓아다니며 제재할 것들이 많았지만, 실내놀이터는 위험한 것도 없고, 한눈에 넓은 공간이 다 보여서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아이들 노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엄마들에게도 편한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놀이터 친구 엄마들에게 발달장애아동과 함께 놀아야 하는 곳이라 같이 가자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고, 실제 장애아동을 처음 만났을 때 혹시나 아이들을 때리진 않을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제 아이 옆으로 갈까봐 제가 지켜서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장애아들과 같이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은 어른이 만들어 낸 것일 뿐 아이들의 눈에는 다 똑같은 친구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장애아동사회적응을 위한 통합놀이관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냥 실내놀이터입니다. 큰 아이의 실내놀이터 사랑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아이는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자라있겠지요.

# 발달장애인의 더욱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고등학생 때, 같은 반에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복잡한 사칙연산도 잘 풀 정도로 영리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대해주던 친구들도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괴롭히는 친구들을 말리거나 나서서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 스스로 너무 힘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큰 사고 없이 졸업하였고, 그때의 기억이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 사회복지과를 선택하고, 또 이 센터에서 봉사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씩 4명의 친구들과 사회성발달운동을 합니다. 반마다 아이마다 장애정도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땐 손을 잡고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땐 제가 더 신나게 뛰기도 합니다.

사회성발달운동은 아이들의 신체능력도 기르지만, 또래친구들과 선생님, 또 봉사자인 저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형성 능력을 키우도록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지수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수를 처음 봤을 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절 낮설어 하는 것도 같았고, 수업을 하기 싫다며 주저했을 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봤을 때부터는 저를 많이 반겨주었고, 운동하기 싫다고 주저했을 때면, 지수가 좋아하는 곰 세마리 노래를 불러주며, 지수와 울동도 함께 하며 달래주면, 전보다 더욱 열심히 운동도 하고, 수업을 힘들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봉사자 육동규

봉사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차츰차츰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더디지만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아이들과 같이 뛰놀다 보면,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안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될 텐데...

과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 장애 유형 중 가장 취업률이 낮은 장애가 발달·지적 장애라고 합니다.

취업 한 경우에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적어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발달·지적 장애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발달·지적 장애 아이들에게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보니, 스웨덴의 모든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빨리 찾아내어,

각 시기마다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지원하여,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많은 성장과 발달을 이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발달·지적 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비장애인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일까요?

## 오늘 더 사랑해 줄거야

화창한 날씨의 화요일 오후, 저는 기분 좋은 발걸음을 합니다. 학교 과제로 시작해서 방문했던 이곳이 매주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곳이 된지 벌써 일 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날, 많이 긴장되고 무섭기도 했고, 혹시나 난폭한 아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인사를 하는 순간 두려움이나 걱정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뛰고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고 말하는 것, 눈빛이나 손동작 하나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장애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어린이인데 말이죠. 그때 전 아이들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명씩 제 이름을 외워주고 저한테 와서 말도 걸어주고 질문도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루에 4시간, 한 시간마다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오는데 한 명 한 명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수업 중에 공을 던져 서로 주고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작고 왜소해서 공을 받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을 무서워서 받기보다는 피하기만 했



대학생봉사자 김기은

습니다. 그 중에 예준이라는 아이가 유난히 공을 무서워하고 몸을 돌려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을 패스했는데 공을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섭지만 예준이는 용기를 내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밖에도 줄넘기를 하나도 못 넘던 아이가 하나 둘 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능숙하게 줄넘기를 하고, 장애물 넘기를 잘 못하던 아이가 더 큰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며,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순수한 모습에 반해 이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매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더 쉽고 유익하게 도와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쓰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활동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여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 정신 없는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기분을 다 느끼시고 그 아이의 수업태도에 대해 어디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더 힘써야겠다. 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신기하고 대단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이제 저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거지만 그 하루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매번 가기 전에 '오늘은 무엇을 할까? 부족하지만 오늘은 더 사랑해줘야겠다!' 생각하며 집을 나섭니다. 매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장애아동이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늘 힘이 나고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은 저를 변화시켜주는 천사입니다. 매주 화요일 남들에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설렘이고 행복입니다.

## 한 줄 햇살보다 더욱 빛나는 아이들

10월 군 전역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오가며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갑작스런 '복학'은 그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갓 전역 후의 짜웠던 계획은 원대했던 패기와 함께 점점 무더졌고, 그렇게 결국 계획했던 편입을 접고 결정한 것이 복학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닌 사회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정말 어찌 보면 코앞으로 다가온 취업에 '복학'은 다급한 일이었고,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찾게 되었던 봉사활동.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남들보다 하나 더 경험하기 위한 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나 아동복지와 같은 복지관련 전공은 아니지만,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놀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특별한 봉사활동이 하고 싶었던 제가 선택한 곳은 '서울시 장애 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였습니다. 난생 처음 접하게 될 활동과 장애아동과의 소통을 해보고 싶어 결정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 반겨주시던 선생님들의 친절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지도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심하게 경계하여 수업시간에 방해를 주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발달장애 아이들. 아이들은 낯선 자에 대한 경계를 습관화 한 것처럼 저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계들도 잠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같이 뛰기 시작할 때는 정말 통제를 잃은 듯한 자유분방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육들과 봉사활동들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자유로운 사고표현을 더

욱 느끼게 하였고, 이 아이들은 마치 하얀 스케치북에 흰 색연필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습니다. '장애'라는 편견으로 바라보기에는 오히려 미안한 그 순수함과 자유분방함이 전역 후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저의 삶을 하얗게 비추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매주 나가게 되면서, 4개 반의 아이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아이는 항상 저에게 '아빠~' 하며 달려옵니다. 정말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뭐랄까요, 정말 마치 아빠가 된 것처럼 저를 설레게 하고, 가슴 벅차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의 가족 아닌 가족이 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나 맑습니다. 맑다 못해, 순수함으로 빛이 납니다. 활동 중에 목표의 수만큼 하지 못하여 울기도 하고, 사탕하나에 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하고 집으로 당황스럽게 하는 일반적인 어린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타인의 주입으로는 색이 입혀지지 않는 하얀색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배우고, 저의 마음에도 자유분방함을 입혀주는 시간으로 느껴져 매시간의 방문이 '햇빛을 쬐러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지금도 저를 벅차고, 설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학생봉사자 김동윤

## 따뜻한 등지였던 사회성증진반을 떠나며...

7년이 훌쩍 더 지났을까요?

갓난쟁이 동생을 유모차에 태우고 훈이와 성내전을 산책하던 중 성내전에서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 지원센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고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찾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7여년 동안 훈이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곳이 되었습니다.

훈이가 지적장애라는 판정을 받은 후, 놀이치료부터 언어치료, 감각치료 등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봐야지' 하며, 이곳, 저곳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부담되는 교육비와 이동시간에 비해 짧게 끝나는 교육시간 때문에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주 바뀌는 선생님들 때문에 '과연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 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사회성증진반"이 생기면서 조금의 망설임 없이 훈이를 교육에 참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어리버리하며 까탈 쓰러웠고, 소심했던 아이가 한해 두해 여섯 해를 지나면서 하나둘씩 새로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주위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며, 같은 반 친구들과 나름대로 소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더구나 현장체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직접보고, 체험하며 같은 또래 아이들도 쉽게 갈 수 없는 여러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소중한 멋진 기억으로 남습니다. 6년동안 배우고 체험해서 인지 지금은 공공시설에서 주의할 것도 아는 매너남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성증진반을 다니면서 좋았던 것은 바로 6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아이들을 지도해주신 담임교사 선생님입니다. 점점 체구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감당하기 힘들실 때도 많으셨을텐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주셨기 때문에



이승민(장훈 어머니)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나 아이들도 무한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모들은 센터에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고충과 즐거운 담소도 나누면서 보약 한첩을 마시는 것 같은 힘을 북돋아 가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현재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엄마들은 위축되고 웬지 낯선 땅에 아이 혼자 보내는 심정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증진반'을 보낼 때는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순간까지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일주일에 2-3번을 오고 가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하거나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 그치지 않고 중·고등과정도 사회성증진반 같은 훌륭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훈이는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온통 '사회성증진반에 갈수 있는 자...'에 대한 생각과 "계속해서 사회성 증진반 다닐거예요" 하며 조르곤 합니다. 어서 빨리 센터 프로그램들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어 절실히 교육받기를 원하는 장애아동들의 큰 힘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맑고, 밝은 웃음을 지니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속에서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을 다져 준 센터장님과 선생님들, 행정팀 선생님들 모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현황**  
(최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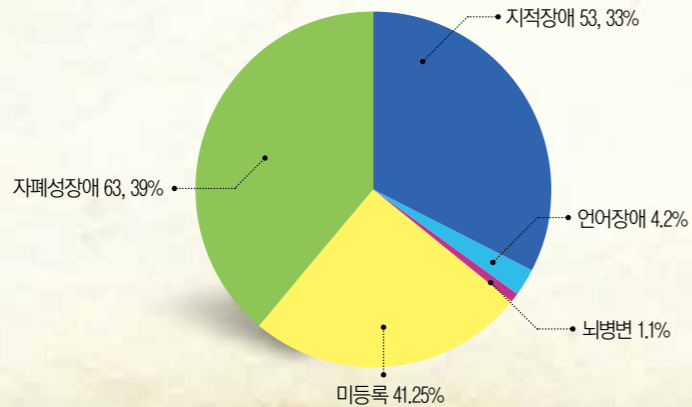
*present condition*

	2011	2012	2013. 5월
합계	26,334	29,150	14,007
장애	15,021	16,719	8,189
비장애	11,313	12,431	5,818

**장애유형별 이용현황**  
(최근 3년)

*present condition*

장애구분	2011. 12 (기준)	2013. 12 (기준)	2013. 05 (기준)
	인원(%)	인원(%)	인원(%)
지적장애	40명 (30.1%)	49명 (30.4%)	53명 (32.7%)
자폐성장애	51명 (38.3%)	57명 (35.4%)	63명 (38.9%)
미등록	42명 (31.6%)	55명 (34.2%)	41명 (25.3%)
뇌병변			1명 (0.6%)
언어장애			4명 (2.5%)
총 인원	133명 (100%)	161명 (100%)	162명 (100%)



**하반기 센터 일정**  
(7~12월)

*schedule*

월	휴관		행사	
	날짜	휴관사유	날짜	행사명
7	29일(월)~31일(수)	하계방학		
8	1일(목)~2일(금) 15일(목)	하계방학 광복절		
9	18일(수)~20일(금) 23일(월)	추석연휴	14일(토)~15일(일)	국악소리여행
10	3일(목) 4일(금) 9일(수)	개천절 개관기념일 한글날	12일(토) 26일(토)	외갓집체험여행 과학체험여행
11	1일(금)	전체 직원교육		
12	30일(월)~31일(화)	종업식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랍니다.



멋지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배울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 많아 보이지만  
비슷한 점들도  
아주 많습니다.



따뜻하게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 illust by 주영

우리는 모두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송주영(자원봉사자)

## 발달장애 친구들의 자립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가 만들어 갑니다.



**오시는길**

- **5호선** 오금역 6번 출구 : 3314, 3315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개롱역 3번 출구 :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 3317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138-817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28-1 TEL : 02-448-3302 FAX : 02-448-6022